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일본어와 한국어!

- お金は‘下ろさない’ 화장실 물은 ‘流さない’?

계속 가지고 싶었던 한정판을 찾았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돈 내려 올게요.’라고 말해 본 경험은 없으세요? ‘お金、下ろして来ます’라고 말하려고 했어도 아마 한국 사람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고 ‘돈을 내려요?’라며 알 수 없다는 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는 모어의 지식을 사용해서 대상언어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의 경우에는 하나의 형식이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두 개의 단어가 강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더 이상 ‘A+B=AB’가 아니라 ‘A+B=C (A와 B를 합쳐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냄)’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역을 해서 는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수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에게서는 누구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어의 ‘下ろす’를 한국어로 찾아보면 ‘내리다’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 ‘내리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리다’라는 동사는 초급한국어에서는 보통 ‘버스에서 내려요.’와 같이 ‘降りる’나 ‘비가 내립니다’와 같이 ‘降る’의 뜻으로 배웁니다. ‘내리다’는 ‘(雨・雪など)が降る’, ‘(人)が(乗り物)から／を降りる’, ‘(人)が(モノ・コト)を下ろす’ 처럼 쓰이며, 전반적으로 ‘어떤 무엇이 (상대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비가 내리다
- ② 마차에서 내리다
- ③ 짐을 내리다
- ④ (화장실) 물을 내리다

어떻습니까? 위의 ①에서 ④의 예문을 보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기서 ③과 같이 일본어의 ‘下ろす’에 대응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은행 ATM에서와 같은 ‘お金を下ろす’를 써야하는 상황에서 한국어학습자는 ‘내리다’로 잘못 쓸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ATM의 경우에는 돈을 ‘내리다’가 아니라 보통 ‘찾다’, 이 외에도 ‘뽑다’, ‘꺼내다’, 또는 한자어인 ‘인출 (引出)’을 사용해서 ‘인출하다’라고 합니다. 은행에 맡긴 자신의 돈을 ‘探す’, ATM에서 돈을 ‘取り出す’와 같은 감각이죠.

또한 일본어에서는 ‘내리다’를 ‘下ろす’를 쓰는 상황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도 있습니다. ④와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水を) 流す’라는 표현의 경우, 일본어는 ‘(トイレの) 水を流す’처럼 ‘流す’라는 동사를 사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 때도 ‘내리다’를 사용합니다. ‘レバーを下ろして、水を下の方向に移動させる’ 라고 생각하면 ‘내리다’를 사용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본어와의 차이 때문에 공중 화장실의 안내 (한국어) 에 일본어의 ‘水を流してください。’를 ‘흘리다 (流す)’로 그대로 직역해서 ‘물을 흘려주세요.’라고 번역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물을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마실 것을 이야기할 때도 ‘내리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세요? 저는 매일 2잔 정도 마시는데 커피콩을 사 와서 마실 때

마다 콩을 갈아서 제가 물을 부어서 마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コーヒーを淹れる’는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힌트는 ‘커피콩에 부은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네, 맞아요. ‘커피 한 잔 내려 줄까?’처럼 ‘내리다’를 사용합니다.

외국어 학습에서 관습화되어 있는 표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하다고 하는 언어라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 들이고 학습을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번 이야기에서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생각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리다’를 중심으로 관련 있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돈은 ‘下ろさない’, 화장실 물은 ‘流さな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잊어 버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였어요? 피곤한 날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놓고 ‘한 잔 가득 내린 커피를 마시며’ 한숨 돌리는 것도 좋겠지요?

박천홍 (도쿄대학교)